



뼈 형성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일양 '비타민D2000IU플러스' 인공색소 무첨가



일양비타민

일양 비타민D 2000IU.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일양 비타민D 2000IU 플러스'를 올 초

출시돼 퀄리티·효과 모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비타민D는 정상적인 뼈 형성과 유지에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년

층에게 중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실내 위주로 활동이 많은 현대인은 비타민D 부족 결핍 현상이 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비타

민D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일양약품은 비타민D 2000IU 플러스를 출시, 각광받고 있다. 활성이 높은 비타민D3 형태의 비타민D 2000IU를 함유해, 하루 1캡슐로 비타민D 2000IU를 섭취할 수 있는 고품량 제품이다. 일양비타민D 2000IU 플러스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원료인 비타민 D3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스위스 DSM사의 Quali-D 마크 인증 원료를 사용한다. 아울러 식물성 투명한 캡슐과 인공색소 무첨가로 안전성을 높였다.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전국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일양약품은 최근 5년

간 (2010~2014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에 따른 진료 인원은 2010년 약 3000명에서 2014년 약 3만1000명으로 3만명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억원에서 2014년 1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3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비타민D 결핍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비타민D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타민D 결핍 인원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50대 24.1%, 40대 18.5%, 60대 13.8% 순이었다.

〈이재성 기자 / scmdnews@hanmail.net〉

성인용 파상풍, 디프테리아 Td백신 올 하반기 출시 녹십자, 타제품 비교 면역원성 유사, 국내최초 자체 기술로 허가받아



시린지주

녹십자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녹십자 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식약처가 작년에 허가 올 하반기 출시한다.

Td백신은 디프테리아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와 파상풍균이 생산한 신경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파상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10~12세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 국내 허가된 '성인용 Td백신'은 모두 해외 수입 제품들로, 국내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Td백신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산하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통해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은 백신의 국내 자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2010년부터 구성한 협의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술혁신 임상백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비의 일부도 지원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개

발기간 단축을 위해 201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품개발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제품화에 성공했다"면서 "이번 Td백신 국산화로 매년 45만 명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십자에 따르면, '녹십자티디백신'은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또 녹십자는 Td백신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혼합백신에 대한 1/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Tdap 혼합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백신 사업 확대 계획에 맞춰 전남 화순공장 내 백신 특화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백신 자급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접종되는 백신 28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은 19종이며, 이 중 9종은 국산 백신 자급율이 46%다.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은 현재 8개 업체,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의 원활한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백신 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